

“정권심판·국민승리”... 민주당 ‘3톱 선대위’ 출범

이재명·이해찬·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 “한 팀 돼 승리” 임종석 전 실장 “어떤 역할이 총선에 도움 될지 고민 중”

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이해찬 전 대표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이 참여하는 4·10 총선 선거대책위원회 출범했다.

선대위는 선거일을 29일 앞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.

상임선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,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공동선대위원장은 모두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점퍼를 입고 참석했다.

이들은 ‘못 살겠다 경제폭망’, ‘못 살겠다 김건희 케이트’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‘정권심판’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.

이 대표는 “이번 선거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결이 아닌, 국민과 국민의힘의 대결”이라며 “나라를 망치고도 반성 없는 윤석열 정권의 심판을 위해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. 국민이 승리하는 길에 유용한 도구가 되겠다”고 강조했다.

이 대표는 “민주당은 역사의 갈림길마다 바른 선택을 해왔던 국민의 집단지성을 믿는다”며 “심판의 날에 국민들은 떨치고 일어나 나라의 주인은 영부인도, 천궁도 아닌 국민이라는 점을 용산이 깨닫게 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이 전 대표는 “이번 총선은 내가 지금까지 치러온 선거 중 가장 중요한 선거라며 ‘현실정치를 떠났지만 이번 선거만큼은 제대로 놓쳐선 안 되겠다’는 절실한 심정이 들어 선대위에 합류하게 됐다”고 말했다.

그는 “우리가 꼭 심판을 잘해서 국민의 고통을 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”면서 “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진실하고, 절실하고, 성실하게 임하는 것”이라고 힘주어 말했다.

김 전 총리는 “우리가 심판론을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알아주지 않겠느냐는 안일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면 안 된다”면서 “역대 선거를 보면 지나치게 자극하거나 반감을 불러일으켜 선거 전체를 망치는 경우가 있다. 후보들은 자기 영혼을 갈아 넣어 국민들에게 호소해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

이어서 “공천을 받은 분들은 공천의 기회를 갖지 못한 분들을 잘 위로하고 그분들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기 바란다”며 “과거 우리 선배들은 바로 그러한 에너지를 함께 모았고 그

래서 오늘의 민주당이 있다. 모두 한 팀이 돼 달라”고 당부했다.

이 전 대표와 김 전 총리는 출범식 후 별도 기자회견도 했다. 그간 공천 갈등과 관련한 질문들이 주를 이뤘다.

이 전 대표는 “이미 그것은(공천 갈등은) 다 지나간 하나의 과정”이라며 “다행히도 최근 경선에서 진 분들이 흔쾌히 전체 선거에 동참하겠다는 자세를 잘 보여주고 있어서 새로운 분열적 요소는 없을 것 같다”고 말했다.

김 전 총리는 “이재명 대표가 당내 공천과등은 언론이 만든 프레임이라고 비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“당의 책임자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”이라며 “(민주당 공천이) 국민의 기대 수준에 부합했느냐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의견이 있다고 말씀드릴 바 있다”고 강조했다.

이어 “그럼에도 지금은 농구로 말하면 ‘올코트 프레싱’ (전면 압박 수비)하는 단계다. 자주 이전의 작전이 유효하냐 등을 지적하면 안타깝다. 과거에 머무를 수 없는 게 선거의 속성”이라고 덧붙였다.

다만 김 전 총리는 “국민과 당원들이 (공천 과정에) 크게 실망하고 화가 나 있는 것도 사실”이라면서 “그분들의 에너지가 지금 조국혁신당 쪽으로 가 있는 것 같다”고 지적했다.

그러면서 “민주당은 비례정당도 일정 부분의 지지가 나와야 선거 전체 국면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.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는 회초리”라고 말했다.

김 전 총리는 “민주당의 수도권 선거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”는 지적에는 “이해찬 전 대표님이 수도권 선거의 귀신이니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진면목을 보게 될 것”이라고 했다.

아울러 그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선대위 합류 여부에 대해 “어제 임 전 실장과 통화했다.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될지 등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했다”고 전했다.

그는 “만약 후보자들이 자극적 표현을 쓰는 등의 실수 행위가 반복되고 선거 전체를 망칠 수 있을 때는 당으로서선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수도 있을 것”이라며 재차 “입단속”을 당부했다.

/오광록 기자 kroh@kwangju.co.kr·연합뉴스



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(가운데)와 이용선 외교통일위 간사(왼쪽), 유동수 의원이 12일 오전 이종섭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.

(사진공동취재단)

민주당 ‘이종섭 특검법’ 당론 발의... “출국 과정 밝히자”

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수 대사에 임명돼 출국한 것과 관련, 이 전 장관의 출국 과정 전반을 밝히는 목적의 특검 법안을 당론 발의했다.

민주당은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금지 가 돼 있는 이 전 장관이 호주로 출국한 것은 대통령실과 법무

부, 외교부 등이 조직적으로 피의자를 빼돌리려 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.

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소병철, 이용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당론으로 발의한 ‘이종섭 특검법안’을 제출했다.

/오광록 기자 kroh@kwangju.co.kr

총선 재외선거 유권자 14만7989명... 대선 때보다 34.6% 감소

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·10 총선 재외선거 유권자 수가 총 14만7989명으로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.

재외선거는 해외에 있는 한국 국적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, 재외선거를 신고·신청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.

이번에 확정된 유권자 중 한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국외부재자는 11만9897명이다.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거나 말소된 재외선거인은 2만8092명이다.

이번 재외선거 유권자 수는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때보다 34.6% 줄었다. 2020년 제21대 총선과 비교하면 14.0% 감소했다.

재외선거 유권자를 대륙별로 보면 아시아 지역 거주자가 51.2%(7만5830명)로 가장 많았고 미주 거주자가 31.5%(4만6595명), 유럽 거주자가 13.3%(1만9624명)로 뒤를 이었다.

전체 재외선거 유권자의 96.0%가 아시아·미주·유럽 등 3개 대륙에 분포하고 있다.

/연합뉴스

국민선거인단이 순위 투표 이정섭 검사 처남택 등 영입

조국혁신당은 4·10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모집에 총 101명이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.

최연소 신청자는 26세, 최고령 신청자는 68세였고 독립유공자, 화가, 대리운전 기사, 종교인 등 여러 직군에서 신청자가 나왔다고 조국혁신당은 전했다.

조국 대표와 민주당을 탈당한 황순하 의원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신청을 했다고 전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밝힌 바 있다.

지난 3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연 조국혁신당은 7일부터 전날까지 다섯날 신청을 받았다.

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추천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오는 15일 남녀 각각 10명씩 총 20명의 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다. 후보자들은 16일 오후 공개 정견 발표를 한다.

이들 후보자의 비례대표 순위는 국민참여선거인단 투표로 결정된다.

조국혁신당은 오는 14~16일 선거인단을 모집하며 17~18일 이틀간 순위 선정을 위한 인터넷 투표를 진행한다.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선거인단으로 신청할 수 있다.

조국혁신당 비례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장

은주 영산대 교수가, 간사는 황현선 당 사무총장이 맡았다.

한편, 조국혁신당은 이날 홍준하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, 김동규 동명대 교수, 프리랜서 아나운서 강미정 씨를 영입했다고 밝혔다.

홍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중소기업·벤처기업 전문가다.

김 교수는 ‘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국내외 교수연구자 시국선언’을 주도한 인물로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대변인을 지냈다.

강미정 씨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정섭 대검총장 검사의 처남택으로 이 검사의 각종 비위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.

/연합뉴스

Inno-biz기업,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

공공하수 · 공공폐수 · 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

-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/ 수질 측정대행업
- 공공하수도 (10,000㎡/일)미만 / 하수관로 관리대행업
-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(TMS)
- 환경건설링회사, 환경관리대행기관
- 폐기물수집운반업, 해외건설업
- 총질소처리 공법(A2O4공법) 등 특허 4건, 실용신안 2건
- 하 · 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, 기술자문
- 공공하수/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운영

수처리용 미생물제, 수처리 기자재 제조

- 미생물제품: 질소처리용 중균제 (Nitcell-O) 하수/폐수처리용 중균제 (Negenzyme)
- 화학약품: 응결제, 고분자응집제, N,P영양제,
- 고효율 STS membrane 봉 산기관 (TMS-600+)
- 판형 산기관 (TMP-1000)
- 유기탄소원: 니트셀-C
- 천연고분자 키토산첨가제 (Nexchy)
- 자동제어반, 교반기
- 부상조, 슬러지 건조기 등

대기환경분야

- 대기 환경전문공사업
- VOC Treatment System
- Solvent Recovery System
- SCR De-NOx System
- Sulfur(H2S) Removal System
- Dust Collection System
- 기술상담 및 자문

- 1997 테린인더스트리(주) 법인설립
- 2011 수출박람회, 수출유공자 수상
-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
-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(유망중소기업인)
-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(환경보전 공로)
-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
-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
-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
-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
- 2023 국제형 모범업체 표창

본사, 공장)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
Tel) 061-336-2588 Fax) 061-336-2587

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
테린인더스트리(주)
Homepage : http://www.taeri.co.kr
E-mail : master@taeri.co.kr

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31120-중-161682호

“튼튼한 척추”
“튼튼한 관절”

무릎 인공관절 수술 고민될때!
첨단우리병원 원장님과 상의하세요!!

첨단우리병원
전화 문의 062)970-6000
광주과학기술원 첨단쌍암공원 앞 위치